

[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

# OECD, 인도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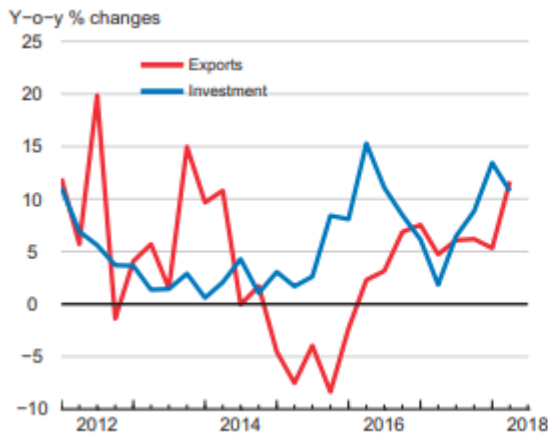
인도 경제는 저속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2019년과 2020년에는 7.5%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상승과 루피(Rupee)의 통화 가치 하락은 수요, 인플레이션, 국가 재정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파산법 개정,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시행, 도로, 전기, 은행의 자본확충(Recapitalisation) 등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여 비즈니스 투자와 수출 부문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는 인플레이션 예상치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으로 긴축통화정책이 요구될 것이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 공공기업 및 은행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통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보조금 개혁은 사회적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공공은행의 거버넌스 개선은 부실채권을 피하고, 투자 회복에 일조할 것이다.

## 투자과 수출, 인도 경제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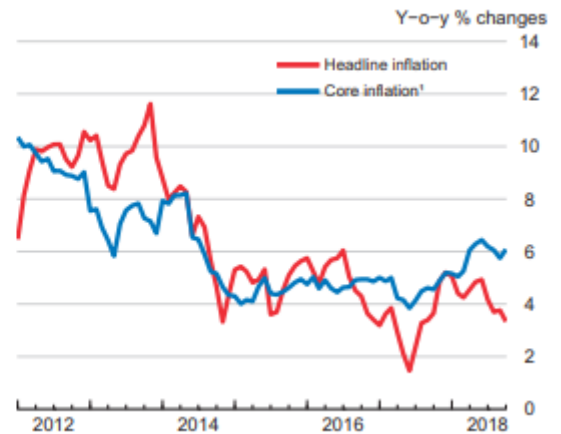
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설비가동률 증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그램 및 구조적 개혁을 통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특히 파산법 개정과 공공은행의 자본 재조정이 투자를 늘리는 데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루피화 약세와 상품용역세(GST) 도입이 수출 반등에 영향을 주었다. 민간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적당한 몬순 강우량(Good Monsoon)과 농촌 도로, 주택, 고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출 덕분이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적당한 몬순 강우량, 석유 제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Excise Taxes) 감면, 정부의 석유 마케팅 기업에 대한 마진 감축 요청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루피 통화 가치 하락, 공공 근로자의 임금 및 주택 수당 증가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연도별 수출, 투자 변동 추이 〉



〈 연도별 근원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



## 인도 경제성장 전망

인도 경제성장은 긴축 재정, 유가 상승, 교역 조건 악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국내외 인도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나, 인도 경제 활동 둔화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인도의 상품용역세(GST) 관리 개선을 통한 수출업체들의 세금 환급 신속화와 루피화 약세는 수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투자의 경우 구조적 개혁, 도로, 에너지 공급 등 인프라 개선으로 활발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s) 인상 결정과 정부의 농산물 구매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상치 못한 문제와 부실채권 감소 지연으로 신뢰도 향상과 투자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유가 상승과 신흥 시장 경제의 격동이 주요 외부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도의 섬유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인도 경제 성장 전망, 2018.11
-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forecast-summary-india-oecd-economic-outlook.pdf>